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Pope Francis 1936~2025

주님,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주소서.

###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소리 주보 ▶



제1독서 사도 5,12-16

화답송 시편 118(117),2-4.22-24.25-27ㄴ(◎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변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2독서 묵시 1,9-11ㄴ.12-13.17-19

부속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파 스 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 리 아	말하여라	무 엇 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 격 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 금 님	자 비 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 황금 등잔대



예루살렘 국회의사당의 깃발과 황금등잔대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장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색 등잔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국회 의사당의 깃발에도 장식되어 있고, 유대교의 최고 성지인 ‘통곡의 벽’ 입구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대표 상징 가운데 하나인 셈인데요, 오늘 제2독서에도 언급되는 황금 등잔대는 어디서 기원하였을까요?

탈출 25,31-40에 따르면, 황금 등잔대는 주님의 성소를 비추기 위해 만들어진 기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 어근은 ‘불타다’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탈출기 율법은 메노라를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순금 덩어리 하나를 마치로 두드려 편도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노라를 편도나무 모양으로 만들도록 규정한 까닭은 이렇게 추정됩니다. 편도나무는 아몬드 나무인데, 겨울이 채 가지지 않은 1월 말부터 2월에 만개하는 꽃나무입니다. 곧 근동 지방에서 맨 먼저 피는 봄꽃이라 예부터 부활과 갱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의 전령이자 갱생의 상징인 편도나무는 황금 등잔대의 ‘빛’과 더불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성소 안에서 암시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에는 “메노라의 불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현존하고 계심을 증명해주는 표상이다.”(사맛 22ㄴ)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메노라의 등잔 숫자는 완전수 일곱이고, 등잔 역시 편도 꽃 모양으로 제작해야 하였습니

다. 메노라가 자리했던 옛 성막과 성전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조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을 자유롭게 뵈 수 있었듯이, 성막과 성전도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곳 모두 죄가 없는 상태, 곧 정결한 상태여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원조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죄를 지어 합당한 정결함을 잃어서였고, 옛 이스라엘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였습니다. 커룹의 존재도 공통됩니다. 에덴 동산 입구에는 커룹들이 불 칼과 함께 그곳을 지켰고(창세 3,24), 성전에서는 지성소에 모셔진 계약 궤에 커룹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원조들이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커룹들이 지켰듯이, 지성소 또한 커룹이 자리하여 백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상징적 구실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두를 감안하면, 편도나무 모양의 황금 등잔대는 에덴 동산의 상징인 성막과 성전에서 생명나무처럼 자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성소 기물들 가운데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져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비록 기원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자취를 감추지만, 그 존재감은 계속 유지되어 오늘날도 성지를 비추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다

### 「교회헌장」 5항

「교회헌장」 2항~4항은 교회의 신비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5항에서는 3항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하느님의 나라”를 독립된 항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항은 제1회기에 제출된 「교회헌장」의 새로운 의안에는 없었으나,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회기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그것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헌장」 5항은 이전 항들과 다르게 교회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의 창립에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활의 시작에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르 1,15)라고 선포하시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시작은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기쁜 소식인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양 떼에 속하게 된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양 떼’는 교회를 나타내는 표상입니다(「교회헌장」 6항 참조). 따라서 말씀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진 것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마르 4,1-20 참조)과 같고, 이 씨앗은 수확 때까지 저절로 줄기와 이삭이 나오고 낱알이 영급니다(마르 4,26-29 참조).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또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병어리 마귀를 쫓아내시며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루카 11,20)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마르 10,45)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창립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프라 안젤리코, 〈산상설교〉, 1438~1440년, 산 마르코 수도원(피렌체)

그러므로 교회는 창립자의 은혜로 하느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느님 나라를 세우며,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싸우고, 그리스도와 영광스럽게 결합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와 그분이 설립하신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실재는 아닙니다. 곧 교회가 하느님 나라 자체는 아니며, 다만 하느님 나라의 성사적 실재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 5,6)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Bell palsy)가 양쪽으로 와서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여어, 이게 누구야?” 전에 있던 본당에서 친하게 지내던 청년이길래 반가운 마음에 악수하며 인사를 건넨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환자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울고 있는 환자의 곁에 한동안 서 있으면서 가만히 환자의 얼굴을 보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울고 있다고만 여겼는데, 다시 보니 얼굴에 표정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환자의 표정을 읽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 돌봄 이론이 기억나서 나는 조심스레 환자에게 말을 건넸다.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표정은 조금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바로 말끝을 흐려야 했다. 말하는 순간, 환자가 무엇 때문에 입원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 안면마비가 온 걸 여태 못 알아보고...” 발음이 잔뜩 새는 목소리였지만, 환자는 예전에 성당에서 볼 때처럼 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예요, 신부님. 그래서 이렇게 맘껏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있네요. 하하.”

그제야 눈이 감기지 않아서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눌렀다 떼거나 입도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아서 입가에 손수건을 대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 아니 어떤 표정도 짓지 못하는 얼굴인 환자를 보다가 나는 또 하나의 돌봄 이론을 기억해 냈다. 바로 영적 돌봄가는 환자의 표정 없는 얼굴에서도 그가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뜩이나 충혈된 환자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그 속마음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환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말없이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말을 건넸다.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얼굴 양쪽에 마비가 다 왔을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아무쪼록 이 힘든 시간이 잘 지나가도록 기도할게.’ 환자도 내 마음을 알아 들었는지 눈물을 닦을 생각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아무 말 없이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방문을 마쳤다.

돌아와 성체 앞에 앉은 나는 주님 덕분에 환자의 속마음을 읽은 하루였다고 감사 기도부터 올렸다. 하지만 곧이어 다음 날 복음을 찬찬히 읽던 나는 불현듯 그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직접 물어보셨는데, 나는 환자의 무표정 아래 있는 속마음을 헤아려 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표정조차 짓지 못하는 얼굴로라도’ 눈물의 이야기를 시작한 환자를 막아섰던 거다.

나의 주님께서도 오늘도 벳자타 못가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를 다 아시면서도 한(恨) 많은 이야기를 마음껏 해보라고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 덕분에 어쭙잖게 돌봄 이론을 펼쳐보느라 눈앞에 있는 환자의 속마음을 멋대로 상상한 어리숙한 제자는 한 번 더 돌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



교구  
소식

한마음 사계 피정 - 5월, 6월 (대침묵 피정)

5/16(금) 16시 ~ 18(주일) 13시    교회의 신앙생활과 성모님의 영성    - 서한석 사도요한 신부

6/6(금) 16시 ~ 8(주일) 13시    예수 성심을 닮은 신앙인의 삶    - 김경진 베드로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한마음 성경공부 2단계 - 4복음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주제		월요일 / 오후 2시		토요일 / 오후 4시	
제1강	성경 개관 및 성경을 읽는 마음 자세	5/12	본관대강당	5/17	통나무강당
제2강	신구약 중간사	5/19		5/24	
제3강	고대 근동 팔레스티나 지역에서의 일상적 삶	5/26		5/31	
제4강	사회구조와 경제활동	6/2		6/7	
제5강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축제와 종교분파들	6/9		6/14	
제6강	각 복음서에 나타나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6/16		6/21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내 변경 가능)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회비 1인당 총 12만원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신청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5/2(금) 15시

장소 주교좌 대성당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5/4(주일) 13:30

장소 교구청 경당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주제 성녀 에디트 슈타인과 함께 걷는 길

일시 5/8(목), 6/12(목), 7/10(목) 20시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당

교재 「침묵 그리고 은총의 빛」

회비 3만원 (현장 접수)

문의 031-908-6811 백석동 성당 사무실

전신자 성경 읽기    4/27(주일)~5/3(토) : 요한 8,12-30



5/31(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 향동 성당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3월 30일 2차 현금으로 133,388,600원, 건축현금 계좌와 가톨릭페이로 9,150,000원, 총 142,538,600원이 모여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향동 본당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청합니다.

향동 성당 박명기 다미아노 신부와 신자 일동

건축현금 계좌: 농협 301-0287-0067-81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향동 성당 사무실(02-3158-0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 피정 ▶▶

###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6/12(목) 17시 ~ 15일(주일) 16시 [3박4일]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지도: 이재욱 요한 신부 (예수회)  
회비: 30만원 [농협 301-0197-3172-01]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 청주 초정성령회관 성령묵상회

일시: 5/2~6/20, 매주(금) 19:30~24:30 (서툼 운행)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5/9(금)~17(토), 7/25(금)~8/2(토)  
하느님,바람,나(힐링피정): 5/23(금)~25(주일)  
효소단식: 5/29(목)~6/1(주일), 6/26(목)~29(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험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날짜: 5/21(수)~23(금) [성모의밤],  
5/24(토)~26(월), 6/2(월)~4(수)  
추차도포함: 5/17(토)~20(화), 6/21(토)~23(월),  
7/1(화)~4(금)  
문의: 064-796-4182, 02-773-1455

###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추차도포함성지순례: 5/26(월)~29(목),  
6/1(주일)~4(수), 9/9(화)~12(금)  
생태순례: 5/10(토)~12(월), 5/20(화)~22(목),  
6/15(주일)~17(화)[추], 6/20(금)~22(주일)  
우도섬포함여름피정: 7/31(목)~8/3(주일)  
문의: 064-756-6009, 02-773-1463

###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 (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4/29 이상기 회장, 5/6 한마르티나 수녀  
문의: 010-5514-4077 회장

###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일시: 5/10(토) 09시~17:30  
장소: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남양주 다산지금로 91)  
강의와 미사: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청주교구)  
회비: 5천원 (티켓 구입)  
문의: 010-9697-9004, 010-9297-8821

### 수도 교부들의 가르침

1차: 6/11(수) 15시 ~ 12(목) 13시  
2차: 7/2(수) 15시 ~ 3(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12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 2025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성모님께 33일 봉헌 3차 감사피정: 5/5(월)  
강사: 정윤화 신부, 한영임 회장  
성모님께 33일 4차 봉헌: 5/7(수)~6/8(주일)  
오전: 묵주기도 20단  
오후: 봉헌기도 (강의, 기도, 파견미사)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중동역 5분거리)  
문의: 010-3248-9705 지혜의샘

### 가정선교회 5월 피정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5/3(토) 홍성남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5/7(수) 김현우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5/17(토) 하성용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가정회복을 위한 치유 대피정: 5/25(주일) 10시  
안토니 데카나스 신부  
시간: 12:30~16:50 / 장소: 가톨릭회관 3, 7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가정선교회

###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 피정

일시: 4/28(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의와 안수)  
강사: 김대영 베드로 신부 (전주교구)  
문의: 010-8917-0090

###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5/2(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김영철 베드로 신부  
강사: 성체현시와 함께하는 기도회  
문의: 010-2127-0032  
※ 5/9은 성령대축제 준비로 기도회를 쉽니다.



## 교육 · 모집 ▶▶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계약직) 채용

분야: 편집디자인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접수: 5/16(금) 14시까지  
문의: mano@cbck.kr

###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성가대 연습: 평일 및 주일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 소정의 수수료 지급 (채용시 마감)

### 우니파스 청소년·성인 오케스트라

활동: 미사반주, 봉사연주  
연습: 주일 14시, 원흥동 성당  
문의: 010-5031-3475

###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중앙우체국 사서함5234호 (서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 재속 맨발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건전성사 받은 자  
첫모임: 6/9(월) / 문의: 010-9836-8998

###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접수: 4/28(월)~5/11(주일)  
면접: 5/30(금),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ged.catholic.ac.kr/ged/index.do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지휘  
문의: 010-9842-8818 (나이 제한 없음)

###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주방근무자 모집

문의: 010-3401-5541

###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2025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 문화영성학과(석사과정)-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4/28(월)~5/11(주일)  
면접: 5/23(금) 19시 (예정)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서울반포)  
문의: 02-3147-8787, gcs.catholic.ac.kr

###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CCM 생활성가 코드 반주법

일시: 5/12~6/30, 매주(월) 19:30~21:30 [2시간]  
장소: 중림동 최양업홀 / 강사: 김상균  
접수: 4/21(월)~5/2(금)  
문의: 02-393-2213~5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캐나다: 토론토대 기숙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IVY리그 탐방  
미국: 공립대 1위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등  
영국: 교육 명문 옥스퍼드 기숙캠프, 손흥민 토트넘, 해리포터, 서유럽 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운정 성당 관리장 모집**

인원: 1명 / 자격: 65세 미만 남성, 세례받은지 3년 이상  
업무: 성당 미화, 경비, 방호, 제반시설 관리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추천서, 교적사본, 자격증사본(우대)  
우편접수: 파주시 운정별판길 72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캠프 모집**

미국·아일랜드 기숙사 학교, 초3~고1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례지교회 해외학교법인

**안내 · 기타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에게 여러분의 나눔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을 이어가는 '바보의나눔'에 희망을 보내주세요.  
하나 810-100510-05404 (예금주: 바보의나눔)  
문의: 02-727-2506~7, www.babo.or.kr

**성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탐방 및 성지순례**

6/14(토)~17(화): 부산11, 마산6  
6/21(토)~23(월): 춘천15, 성내동  
출발: 서울 명동, 죽전  
8/28(목)~9/3(수): 백두산~브뤼기에르주교 고난의 길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9/21(주일) / 비용: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미리 준비하는 추석연휴 순례  
10/3(금)~13(월) 중앙아시아 (498만원)  
10/7(화)~12(주일) 필리핀 (205만원)  
10/7(화)~10(금) 중국 상하이 (168만원)  
10/7 (화)~10(금) 홍콩, 마카오 (189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6/9(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9/17(수) 희년 희망의 순례 이탈리아 일주 (11일)  
10/20(월) 시니어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2025 꽃동네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소주일 <떠나라!>**

주제: 떠나라! / 일시: 5/11(주일) 10시~16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점심도시락 지참)  
내용: 희망으로 떠나는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창세 12,4)  
대상: 유치부~일반부  
접수: 5/4(주일)까지 (전화 접수)  
문의: 010-5571-2516 형제회  
010-9894-1973 자매회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26(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7/8(화) 메주고리에 성모성지 (11일)  
지도: 조승균 바오로 신부  
9/18(목) 이탈리아 성체기적성지 (9일)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6/3(화) 초기교회의 발자취-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금)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9/4(목) 북유럽의 진주-발트 3국 (9일, 460만원)  
10/18(토) 알프스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희년 맞이 성모성지와 로마 순례**

바니, 루르드, 파티마, 착한의견의성모 발현지와 로마 희년 순례길 - 7/7(월) 출발 (12일)  
문의: 031-834-1262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교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9/15(월): 일본 나가사키 (4일, 119만원, OZ)  
9/8(월), 9/15(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9/16(화): 성모님 발현지와 스페인 북부 (12일, 535만원, KE)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1/2(주일), 11/9(주일): 희년 이탈리아 (7일, 2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2025 DMZ 평화의 길**

날짜: 5/16(금)~18(주일) [2박3일]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40명 선착순)  
회비: 15만원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위원회

**[전시] 최선옥 서양화 개인전 - 이골리다展**

일시: 4/26(토)~5/9(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공휴일, 월요일 휴무)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회	수시	서울 성북동 본원	010-8715-2846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상시 (상담 후 결정)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 봉헌 (Oblatio)

지난번에 살펴본 감사기도 중 ‘기념’(Anamnesis)에서처럼, ‘봉헌’(Oblatio)의 경우도 역시 성찬 제정 축성문으로 희생 제물의 봉헌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에도 별도의 봉헌 기도를 바칩니다. 「미사 경본 총지침」은 이 봉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 특히 지금 여기에 함께 모인 교회는 이 기념제로 흠 없는 제물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봉헌한다. 교회는 신자들이 흠 없는 제물뿐 아니라 자신도 바치기를 바란다”(79항).

고대교회부터 거의 모든 전례는 ‘기념’과 ‘봉헌’을 연결하였는데, 그중 ‘봉헌’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 전문, 곧 제1양식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말 번역문은 “... 기념하나이다. ... 봉헌하나이다.”이지만, 라틴어 원문에는 “... 기념하면서 ...봉헌하나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념 기도의 문장이 봉헌 기도문에 종속되어 있을뿐더러 봉헌 기도의 내용이 훨씬 길게 나옵니다.

먼저,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가운데서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 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존엄한 대전에 봉헌하나이다.”라는 구절에서는 교회가 바치는 성체와 성혈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며 흠 없는 제물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키체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을 받아 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라는 구절에서는 구약 시대에 올바른 제사를 바친 인물들, 곧 아벨과 아브라함과 멜키체덱을 언급하는데, 이는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우리가 스스로 부당함을 절감하기에, 구약의 제사를 상기하면서 우리의 제사도 그와 같이 받아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 제단에 오르게 하소서.”라는 경문은 묵시 8,3-5에 나오는 환시를 연상시키며, 제물을 받아달라는 청원을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제2양식의 봉헌 기도는 기념 기도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도 자체가 간단명료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생명과 구원이라는 효과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어서 나오는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라는 경문은 히폴리토의 봉헌 기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기념하고 봉헌하면서 다시 감사로 되돌아가는 내용이 특별합니다.

제3양식의 봉헌 기도도 기념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제2양식처럼 간단합니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 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거룩한” 제물이며,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시어 영광중에 계신 “살아 있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제4양식은 성체성사를 통해 봉헌하는 제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봉헌하나이다. 이는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사이며, 세상에 구원을 주는 제사이옵니다.” 이로써 성찬례가 예수님의 희생 제사와 다른 제사가 아니라, 성부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십자가 제사와 같은 제사임을 밝힙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b>행 주 성 당</b>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7일 마리아나: 조경님

29일 카타리나: 김보경

**■ 5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신순남 마리아, 최태욱 베드로, 광복례 마리아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5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례**

**■ 5월 성시간**

일 시: 5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

**■ 5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5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공지**

**■ 5월 성모 성월 묵주 기도**

5월 한 달 동안 매일 미사 1시간 전에 성당에서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조금 일찍 오시어 묵주 기도 봉헌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에는 오후 3시에 묵주 기도 봉헌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5월 봉성체**

일 시: 5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4월 27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우리들의 정성 (4월 14일 - 4월 20일)**

교 무 금	3건	280,000원
주 일 헌 금		1,401,000원
성지 복구 헌금		355,000원
사순 저금통 봉헌		451,000원

**■ 감 사 헌 금**

박순이 10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4월 27일	주송자	오정화(아녜스)
	배성은(소사아가다), 구미경(리베라따)	
05월 04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고백주(안토니오), 허경옥(도로테아)	